

복지는 교육이다

사회복지사,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가?

| 글 : 김성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최근 북한 핵문제
로 어수선한 우리나
라에 반기문 외교통
상부 장관의 유엔사
무총장 인준 소식은
큰 경사가 아닐 수 없
다. 유엔사무총장 인
준을 계기로 우리나
라는 세계 속의 대한
민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
였다.

이제 사회복지사
도 세계로 눈을 돌려

야 한다. 보다 넓은 세계로 세계의 빈곤, 세계의 재난에 대해 이야기
하고 고민해야 한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이를 위해 작년 9월 서울에서 열린 제18회
아시아 태평양 사회복지사 . 교육자대회에서 빈곤, 학대, 재난으로부터
아태지역의 취약 아동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APPLE(Asia
Pacific Happy Children & Family Echo)프로젝트를 제안하였다.
또한 APPLE 프로젝트의 실천적 행동으로 지난 2월 11일부터 26일
에는 파키스탄 지진피해지역인 가리하비블라와 비시안에서 '희망의
워크캠프'를 열었다. 캠프는 사회복지사와 청소년 자원봉사자 89명
으로 구성되어 재난구호활동을 성실히 실행함으로써 삶의 터전과 희
망을 잃은 지진피해자에게 재난을 극복하고 재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일회적인 지원에 머물지 않고 현지에 APPLE 센터
를 설립하여 전기 기술을 교육시키고, 급식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사회복지가 재난 현장에 일회성 지
원으로 머무는 기존의 재난구호 활동을 넘어서는 새로운 구호활동 모
델을 제시한 아주 뜻 깊은 활동이기도 하다.

지난 달 10월 26일부터 28일에는 서울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싱가포르, 태국, 스리랑카, 키르키즈스탄, 필리핀 등 8개국이

참가한 APPLE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워크샵에서는 '아시아지역의
人災와 天災 대비'를 위한 심포지움 및 아시아지역의 사회복지 정보
교류와 지역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결의를 다지는 가시적인 성과
를 이루어냈다.

21세기는 글로벌 시대이다. 이제 사회복지사도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높여 현실에 안주하기 보다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글로
벌 시대는 전 세계가 '지구촌'으로 불리면서 다양한 인적·정보 교류
가 활성화 되고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지는 사회이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회복지사라면 자신의 전문성에 대한 고민과 함께
세계적 시각에서 다양한 변화와 사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그
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이러한
실천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회복지에
대한 올바른 정의의 이해와 교육이다.

최근 IASSW(세계사회복지교육협의회)와 IFSW(세계사회복지
사회협회)에서는 사회복지의 정의를 "사회복지는 변화하는 사회 속에
서 인간관계의 문제 해결과 삶의 질 강화를 위해 국민들의 자활력과
자유를 촉진시키는 학문이다. 사회복지사들은 인간행동과 사회행동
의 이론을 활용하여 국민과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현장에 개입하여 활
동한다"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사들이 힘을 가져야한다. 필자가 이야기하는 힘은 남을 지배하려는
POWER OVER가 아니라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POWER WITH
의 힘을 말한다. 그럼, 이러한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교육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사회복지사들의 집단체험적 교육이 꼭 실시되
어야 하는 이유이다. 모든 사회복지사가 힘을 가질 때 국민들은 복지
서비스의 기획자인 사회복지사에게 존경과 신뢰를 가지게 된다. 사
회복지사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능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
도록 도우며 외적 자원과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향상시키도
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16만 사회복지사 모두 POWER LEADERSHIP 능력을 갖춰 시
대를 앞서나가자. 